

모든 시정 '공유'...시민만 보고 매진 깜코 사업 실패 구상권 청구 등 검토

윤장현 광주시장

윤장현 광주시장의 지난 7월1일 취임 일성은 낮은 자세에서 시작하는 소통이었다. 취임 첫 번째 결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에 대한 건이었다. 매일 각 분야의 시민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현안마다 조심스런 행정을 펼쳤던 윤장현 시장은 7일 '민선 6기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시정 방향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깜코 사업과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방안 등 전임 시장의 행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다소 곤혹스런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제시했다. 다만 취임 초기 의욕에 비해 원활치 못했던 의회와의 관계나 매끄럽지 못했던 일부 행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그간 많이 배운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시의회, 언론과 함께 시민만을 쫓아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00일 동안 시정을 펼쳤던 느낌과 윤장현 시장 행정의 방향을 소개한다.

▲이직 (내가 갖고 있던)시정 철학과 방향을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과 완벽히 호



은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사건이다. 해당 업체의 보유 자산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소송을 끌고 가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시 예산만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겸

한다'를 결정해 놓고 가지는 않았다. 타당성 재검토 TF를 구성해 2호선 건설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왔던 분석 자료들과 근거 자료로 제시했던 수요예측, 재정전망, 건설방식의 적합성 등에 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자동차 100만대 조성기차 프로젝트는 지역의 현안임에도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시민, 노사, 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총망라한 '광주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안정을 기하고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연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노조에서 최근 기아차 4공장 신설 등 8개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이 국제 시장의 동향과도 밀접한 만큼 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취임 초기에 조직개편안 마련과 시 산하 기관 인사 등으로 인해 시의회와 마찰음이 있었는데.

▲솔직히 초반에 정치적·행정적 기술이 다소 미흡해 아쉬운 일들이 발생한 것이지, 시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행정의 동반자로서 정신은 변함이 없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도시공사 사장 등 민선 6기 들어 선임한 사람들이 그 직분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상생·협력하고, 의회를 통한 시민 여론의 전달은 경청해 시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재정적자와 교통수요 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 미리 '한다, 안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하철 2호선 건설 여부 여론 수렴 최대한 빨리 결정

수영선수권 선수촌 균형발전 위해 2~3곳 건립 고려

취임 초기 시의회와 마찰·산하기관 인사 잡음 아쉬워

움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관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직자의 자발성과 창의성, 능동성이 필수적인데 공무원들도 이를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 시의 모든 행정은 '공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애초 광주의 모든 것은 시정을 포함한 정부 시민의 것이었다.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사 1층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공간의 공유이며, 현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시정의 공유이다.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고, 공공시설과 자연 환경을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의 기회를 늘릴 생각이다.

-깜코 사업 실패와 관련해 소송 포기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선 5기 때 일기만 하지만 깜코사건

코 관련 형사재판이 끝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상권 청구(공소시효 10년) 등을 검토하겠다. 잘못해서 사기당했으니 앞으로 조심하기로 하고 그냥 끝내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잘 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개최와 관련해 선수촌 대상지 결정 문제가 뜨겁다.

▲5개 자치구에서 서로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돼선 안된다.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2~3곳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전제 조건은 남은 기간 내 건립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이 준비된 곳 중에서 선택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적자와 교통수요 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 미리 '한다, 안

6년간 끄긴 '호남 상생' 토대 마련 성과 F1 열리지 않더라도 경주장 100% 활용

이낙연 전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는 6년동안 끄졌던 호남 상생의 토대를 다시 마련한 점이 지난 100일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이낙연(號)의 브랜드로 '섬'과 '숲'을 들고 나왔다. 전남의 경쟁력있는 있는 자산인 섬과 숲을 소득자원화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고 강조했다.

-100일동안 일해 본 결과 보람이나 한계를 느낀 점이 있었다면.

▲보람과 한계를 모두 경제분야에서 느꼈다. 일본 화학기업 스미모토세이카의 1억 달러 투자를 여수에 유치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이 회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인데 2016년 초까지 여수에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계는 예상한대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인구회복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까지는 수적으로 보여 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민스럽다. 장기 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낸 특징적인 행



해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임 지사의 대표 사업인 F1과 사파리아일랜드 조성 등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임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을 우리들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전남개발공사 문제는 경영진단을 실시해 내년초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해 운영 방식이나 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지속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겠다.

-전남의 난제인 인구 증가와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은 있다.

▲인구 200만명 회복이 꿈이다. 인구 증가를 위해 도청 조직도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개편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도내 대학 졸업생 8000여명 가운데 1300명만 전남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타지로 떠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이면 16개 기관과 100여개의 관련 기업이 들어온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만큼 도비를 들여서라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를 할 생각이다.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가고싶은 섬 만들기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이를 방점이다.

-이낙연호의 브랜드가 될 '가고 싶은 섬'과 '숲속의 전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전남의 미래가치는 섬과 숲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섬의 환경이나 전통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할 생각이다. 연내에 10개년 계획을 세워 연차별 타임 스케줄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섬과 숲을 조성하는 것은 임기내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한 세대를 더 보고 무리없고 가급적이면 민간주도로 하겠다.

▲F1은 열리지 않더라도 기왕 4500억원을 들여 투자한 경주장 활용은 충실하게 할 생각이다. 지금도 365일중 265일은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고 있어 이것만 보면 하는데 힘썼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송하진 전북지사가 동의해주시어 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재임기간내 상생 협력을 통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과 적극 협력

섬·숲이 전남의 미래가치...연내 10개년 개발계획 수립

경제 활성화 가장 어려워...공정 인사·소통 노력에 자부

정을 끄는다면.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와 소통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사에서 100% 만족이란 없겠지만 이 정도로 잡음이 최소화됐다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직원들과는 막걸리를 매개로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도의원 분들이 이해해주셔서 민선 6기 초창기 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

-6년만에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는 등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가난할수록 형제가 우애를 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웠다. 호남이 공공롭게도 우리 세대에 와서 위축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파 어떻게든 연대해서 호남의 위상을 복원하는데 힘썼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송하진 전북지사가 동의해주시어 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재임기간내 상생 협력을 통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아마도 비전이 있는 분야에는 공공부문이 다소 무리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민간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사업의 지속 여부가 도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업을 지속하면서 대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다.

우선 사파리아일랜드는 부지 상당부분을 사들였지만 사업의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백지상태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F1은 지속할 경우와 중단할 경우, 대책을 감안해서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

F1은 열리지 않더라도 기왕 4500억원을 들여 투자한 경주장 활용은 충실하게 할 생각이다. 지금도 365일중 265일은 크고 작은 대회가 열리고 있어 이것만 보면 하는데 힘썼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송하진 전북지사가 동의해주시어 이나마 성과가 있었다. 재임기간내 상생 협력을 통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